2024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④	2	④	3	④	4	④	5	③
6	③	7	⑤	8	③	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④	14	①	15	②
16	③	17	⑤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①	23	⑤	24	⑤	25	②
26	②	27	⑤	28	⑤	29	⑤	30	①
31	④	32	④	33	⑤	34	①	35	②
36	⑤	37	④	38	④	39	②	40	③
41	⑤	42	④	43	②	44	⑤	45	⑤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2문단의 '이해가 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어려우신가 보네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3문단에서 식물의 의사소통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세균에 감염된 리마콩의 옆에 있는 건강한 리마콩의 살리실산 비율'을 '도표'로 제시하여 식물의 의사소통 결과를 설명하고 있지만, 감염된 리마콩이 생성하는 살리실산메틸 비율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가시광선'에 속하는 '적색광'과 '원적색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청중이 가시광선에 대한 학습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난 동아리 시간에 배운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발표 화제에 대한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시간을 재고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영화 속 나무 캐릭터'의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식물의 시간 측정을 설명하기 위해 '낮'에 '적색광을 흡수한 형태의 피토크롬이 많'은 것과 '저녁부터 밤사이에는' '원적색광을 흡수한 피토크롬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하여 '두 유형의 피토크롬의 비율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식물의 인지 행동에 대한 연구'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1'은 알고 싶은 정보인 '리마콩이 딱정벌레에게' '물렸을 때 방출하는 화학 기체'를 '알려 주지 않아서 아쉬워.'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학생 3'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리마콩이 딱정벌레에게 물릴 때도 화학 기체를 방출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면역 체계'가 '인간이나 동물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식물도 자신을 방어하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만지면 움츠러드는 이유'에 대해 '인지 행동과 관련된 것일 수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2'는 '식물이 분비하는 다른 호르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고 말했고, '학생 3'은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만지면 움츠러드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조사해 봐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두 학생 모두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오늘은 학교 연못을 되살릴 방안에 대해 의논하기로' 하였다고 화제를 제시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우리한테 좋은 것만 ~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라며 앞선 '학생 2'의 발화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학생 2'에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에서 '네 생각에도 ~ 같다는 거지?'라며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정리하고, '혹시 주변 학교에 ~ 사례가 있을까?'라며 화제인 생태 연못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자신은 '글의 초고를 써' 오고, 대화 참여자에게 '초고에 필요한 내용을 더 찾아서 보내' 달라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 시간에 초고를 함께 검토하자.'라며 추후 모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기

[A]의 '학생 2'는 [B]의 '학생 3'과 달리 앞선 '학생 3'의 연못에 비단잉어를 풀어 놓아 '구경도 하고, 먹이도 주면서 기르'자는 말에 '자연 상태에 ~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라며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연못뿐만 아니라 ~ 고려해야 해.'라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가)에서 부레옥잠의 자정 작용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언급된, 원래 있던 연못은 학생 휴식 공간 위주로 조성되어서 연못 생태계는 고려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나)의 1문단에 '학교 연못을 ~ 조성한 결과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태 철학자 네스의 주장을 (나)의 2문단에 '생태 철학자 네스는 ~ 주장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언급된, 연못의 수심과 바닥 토양의 두께를 달리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연못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나)의 3문단에 '이를 위해서는 ~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다양성의 원리와 연관 지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생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연관 지어 (나)의 4문단에 '이를 위해 ~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생태 연못 조성 시 고려할 사항과 생태 연못의 가치'라는 (나)의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작은 오케스트라'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는 자전거 주차장에 늘어나는 방치된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방치된 자전거 수거 기준 보완,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 마련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3문단의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는 ○○시의 수거된 방치 자전거 처리 현황 중 '매각(고철 처리)'의 비율이 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는 △△시의 방치된 자전거 처리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뿐 수거된 방치 자전거를 고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다는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최근 우리 지역 ~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에서 방치된 자전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에서 방치 자전거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방치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하겠다는 활용 방안은 적절하다. ② 2문단의 '현재 우리 시 ~ 어려움을 겪고 있다.'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방치된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의 '시에서 수거할 ~ 않아서 난감하다.'에서 다른 시도 방치된 자전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난감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거의 기준이 모호하면 수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는 활용 방안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자전거 폐기 방식에 ~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에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3]의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 개선할 수 있습니다.'에서 올바른 폐기 방법을 홍보하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자전거의 폐기 방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다는 활용 방안은 적절하다. ⑤ 3문단의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 해결할 수 있다.'에서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에서 '재활용'의 비율이 3%로 적음을 알 수 있고, [자료 3]의 '또한, 수거된 자전거를 ~ 해소할 수 있습니다.'에서 지역 사회의 부가 가치를 고려한 다양한 처리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예술계와의 협업, 지역 특색 상품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면 재활용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거한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추가해야겠다는 활용 방안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A]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에 ~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장의 전체 주어는 '우리 모두'이다. '우리 모두'가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야 하므로 '시민들' 뒤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조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세 번째 문장에서 조사를 수정하는 대신 '높이고'를 '높히고'로 수정했을 뿐 부적절하게 사용된 조사를 알맞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친구의 조언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문장이다. <보기>에는 이 문장이 삭제되어 있어, 친구의 조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는 윗글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표현이 없는 반면, <보기>에는 '이처럼'을 추가하여 글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단의 시작에 들어갈 표현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친구의 조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의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에는 해결책과 관련된 주체로 '시민들'만 제시되어 있다. <보기>의 '이처럼 자전거 주차장에 ~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에는 '지자체의 노력'이 추가되어 있어 해결책과 관련된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친구의 조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A]에는 '깨끗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에서 '깨끗한'이 수식하는 범위가 모호하다. <보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깨끗한 관리를'이라고 되어 있어 수식의 범위가 모호한 표현이 있으니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친구의 조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보조적 연결 어미의 쓰임 이해하기

㉮ 보조적 연결 어미 '-고'는 단어와 단어를 잇는 기능을 하나, '나무가 태풍을 못 견디고 쓰러졌다.'에서 '-고'는 '나무가 태풍을 못 견뎠다.'와 '나무가 쓰러졌다.'의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준다. 또, '나무가 태풍을 못 견디고서 쓰러졌다.'와 같이 '-고' 뒤에 '-서'가 붙을 수 있다. 따라서 보조적 연결 어미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가 떠나고 말았다.'에서 '-고'는 본용언 '떠나다'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이라는 의미를 지닌 보조 용언 '말다'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또, '그가 떠나고서 말았다.'와 같이 '-고' 뒤에 '-서'가 붙을 수 없으므로 '-고'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적절하다. ② '자꾸 따지고 들지 마라.'에서 '-고'는 본용언 '따지다'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거칠고 다그치듯이 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보조 용언 '들다'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또, '자꾸 따지고서 들지 마라.'와 같이 '-고' 뒤에 '-서'가 붙을 수 없으므로 '-고'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적절하다. ③ '너 아직도 울고 있구나.'에서 '-고'는 본용언 '울다'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됨'이라는 의미를 지닌 보조 용언 '있다'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또, '너 아직도 울고서 있구나.'와 같이 '-고' 뒤에 '-서'가 붙을 수 없으므로 '-고'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적절하다. ④ '빨리 숙제부터 하고 나서 놀아라.'에서 '-고'는 본용언 '하다'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보조 용언 '나다'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또, '빨리 숙제부터 하고서 나서 놀아라.'와 같이 '-고' 뒤에 '-서'가 붙을 수 없으므로 '-고'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이어진문장 내 의미 관계 분석하기

ⓒ에서 '차고'의 '차다'는 사전적 의미상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라는 뜻으로, 공을 차는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지 않는다. 이에 의미 자질을 [+완결성][-지속성]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고'는 시간적 순차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차고'의 '-고'는 ㉡이 아닌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앞뒤 절의 주어가 각각 '지호'와 '성주'로 다르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앞뒤 절에 모두 쓰이는 것으로 보아, '갔고'의 '-고'는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는 '성주는 보건실에 갔고, 지호는 교무실에 갔어요.'와 같이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업다'는 체육 선생님이 성주를 업는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업고'의 '-고'는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확인하고'의 '확인하다'는 선생님이 '보건실에 가서' 성주의 상태를 '확인'한 사건이 끝난 후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뒤 절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확인하고'의 '-고'는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

㉠의 부엌문→부억문→[부엉문]에서 일어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모두 교체에 해당하며, ㉡의 벼훑이[벼훌치]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역시 교체에 해당하므로, ㉠,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가 적절하다.

① 음운 변동이 ㉠에서 2번(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에서 2번(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에서 1번(구개음화)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나, ㉠에서는 교체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는 흙[흑]으로 겹받침 중 'ㄹ'의 탈락이 일어났으나, ㉡에서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는 새로운 음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품사 통용 이해하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의존 명사로 체언에 해당하나 '나도 너만큼은 할 수 있다.'의 '만큼'은 조사로 관계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잘 익은 사과 다섯 개를 샀다.'의 '다섯'은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하나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의 '다섯'은 수사로 체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회의실에 아직 아무도 안 왔다.'에서 '아무'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하나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는 안 된다.'의 '아무'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그 일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의 '모두'는 명사로 체언에 해당하나 '형이 그릇에 담긴 물을 모두 쏟았다.'의 '모두'는 부사로 수식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의 '이'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하나 '이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의 '이'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격조사 분석하기

'아비'는 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가 'ø(영형태)'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王薦(왕천)의'는 유정 체언인 '王薦(왕천)' 뒤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아ᄃᆞ리(아ᄃᆞᆯ+이)'는 자음 'ㄹ'로 끝난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하ᄂᆞᆳ'은 무정 체언인 '하ᄂᆞᆯ' 뒤에서 관형격 조사 'ㅅ'이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너를'은 음성 모음 'ㅓ'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를'이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16 ~ 20] <출전> 오종환, 「교양인을 위한 분석미학의 이해」, 로절린드 크라우스, 「북해에서의 항해」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는 '지지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학자 사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가)는 '질료'와 '형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질료'와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 '실러', '그린버그'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가)의 3문단에서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할 방법'의 '해결책으로 예술'을 선택했고,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예술작품의 질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실러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작품의 질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하여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에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또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술가가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린버그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하여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① (가)의 2문단에서 '예술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이 (가)의 3문단에서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진다고 하였고 (가)의 3문단에서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술'을 선택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예술은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술'을 선택하였고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예술가는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을 뿐 ⓑ에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실러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에서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성질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고,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예술가는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성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실러는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예술이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에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나)의 2문단에서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 규정'했고 '포스트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규칙은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포스트매체 조건 이전에는 물질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을 뿐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예술작품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2문단에서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3문단에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3문단에서 '기술적 지지체'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예술작품'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2문단에서 '포스트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예술작품을 기술적 지지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고, '예술가가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하여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료 2]에서 평론가들이 '작품 B'를 '목탄의 질감이 살아 있는 진정한 목탄화'라고 했다고 했으므로 그린버그는 '캔버스'를 불투명한 매체로 볼 것이다. (나)의 2문단에서 크라우스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를 '물질적 지지체'라고 하였고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는 '목탄화'로 물질적 지지체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에서 실러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고, [자료 1]에서 화가 A 씨는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였으므로 [자료 1]의 초상화의 질료인 '캔버스'를 실러는 투명한 매체로 볼 것이다. 또 (나)의 2문단에서 크라우스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라'고 했고, '캔버스'는 '초상화'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이므로 [자료 1]의 '캔버스'를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볼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를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라고 하였고 '예술작품의 질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며, (가)의 3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졌다고 하였다. 또 [자료 1]에서 화가 A 씨는 '캔버스'에 '물감으로'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였고 '캔버스'와 '물감'은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인 질료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은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예술작품의 질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며, (가)의 3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자료 1]에서 화가 A 씨는 그림에 어머니를 모델로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고 하였고 이는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인 '형상'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회화에 사용된 질료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라고 하였다. 또 [자료 2]에서 '목탄'으로 그린 '작품 B'를 평론가들이 '목탄의 질감이 살아 있는 진정한 목탄화'라고 하였으므로 '목탄'을 그린버그는 미적 매체로 볼 것이다. (나)의 2문단에서 크라우스가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라고 하였고 [자료 2]에서 '목탄'은 '작품 B'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의 4문단에서 그린버그는 '예술가가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료 2]의 '작품 B'는 '목탄의 질감이 살아 있는 진정한 목탄화'를 실현해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과 달리 [자료 1]의 '초상화'는 평론가들이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이라고 하여 질료의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린버그에게 [자료 1]의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을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이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질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이며 '예술작품의 질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또 [자료 1]의 '초상화'는 '화가 A 씨'가, [자료 2]의 '작품 B'는 '예술가 B 씨'가 그린 예술작품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할 방법'으로 '예술'을 선택했고,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질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자료 1]의 'A 씨'는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고, [자료 2]의 'B 씨'는 '목탄의 거친 질감'이 쌓이는 순간을 그려내어 질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러는 [자료 2]의 'B 씨'보다 [자료 1]의 'A 씨'가 감상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더 잘 전달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크라우스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 규정'했고, '포스트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해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고 하였다. 또 [자료 1]의 '초상화'는 평론가들이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은 모든 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한다고 평가'하여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달리 [자료 2]의 '작품 B'는 평론가들이 '이것이야말로 목탄의 질감이 살아 있는 진정한 목탄화'라고 하였으므로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됐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만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예술작품을 '기술적 지지체'라고 했으며 '규칙 겹침'은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자료 1]과 달리, [자료 2]의 '작품 C'는 '미술관 벽', '촬영했던 영상들'과 '작품 B'가 결합한 기술적 지지체이고 평론가들은 '현대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하여 미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칙 겹침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은 '방관'의 사전적 의미이고, '주목'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22 ~ 25] <출전> 김광식, 「213호 주택」

2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김명학이 사직원을 작성하게 되는 장면을 먼저 서술한 후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사직원을 쓰고 ~ 인쇄 공장으로 들어가'와 '사직원을 내고 ~ 나오며'를 통해 사직원을 내기 전에 인쇄 공장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직원을 내고 나서 인쇄 공장에 들어갔을 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벽돌을 안고 왔다 ~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어찌할 수 없는 고장이라고 변명했으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고장의 원인을 과열로 인한 ~ 창을 두 개나 내게 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막대한 금액으로 ~ 회사에서는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공간의 기능 이해하기

김명학이 공장장실에서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중을 수용하여 전기실에 와서 사직원을 쓰고 있으므로 ㉠ '공장장실'은 김명학이 상대의 의중을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김명학이 아내의 만류에도 개의치 않고, 자기 집 앞 뜰길에 발돋움길을 만든 후 자기 집 현관문 손잡이 근방을 깎아 내고 있으므로, ㉡ '자기 집'은 김명학이 상대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회사에서는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 전기실의 책임도 김명학 기사장에게 맡긴다'를 통해, 김명학이 회사의 요구로 인해 전기 기사가 해야 할 일까지 떠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에 대해서는 기계과 출신으로서의 상식밖에 없다는 것'은 '획일화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계와 살아왔'다는 것을 통해 김명학이 지금까지 노동에 애정을 쏟아 왔음을, 사장이 '회사의 치명적인 타격'의 책임을 김명학에게 돌리는 것을 통해 사장이 그러한 김명학의 자세를 경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기계'가 김명학을 '면직케' 했다는 것을 통해 기계에 예속된 노동자의 삶을, 김명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시간'을 느꼈다는 것을 통해 무력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인쇄기들'을 다뤄온 도시 노동자 김명학이 '인쇄기들'을 보면서 '자기를 덮칠 것같이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강한 고독'을 느끼는 것을 통해 소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김명학이 '돌지 않기 위해' 만든 '발돋움길을 걸어' 보고 '현관문의 손잡이 근방을 깎아 내' 다른 집과 똑같이 생긴 자신의 집에 차별점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획일화된 도시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26 ~ 29] <출전> 제이콥 프레이든, 「현대 센서 공학」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의 '상하부 전극 사이에 ~ 끼워져 있다'에서 수분 유지 기판이 부도체임을, 3문단의 '이렇게 부도체의 표면에 ~ 분극이라고 한다.'에서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것이 분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문단의 '수분 유지 기판의 ~ 정전용량의 기본값이 된다.'에서 정전용량의 기본값은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에 영향을 받은 상하부 전극의 정전용량 값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가 가지는 정전용량의 기본값은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에 영향을 받고, 부도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과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얇은 투습성 소재로 ~ 노출되어 있어'에서 상부 전극은 센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을, '하

부 전극은 ~ 위치하여 있는데'에서 하부 전극은 센서 내부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전극에 축적되는 ~ 감지하는 센서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감지된 정전용량이 ~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정전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 저장하는 장치로'에서 정전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전극에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기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는 상부 전극, ⓑ는 수분 유지 기판, ⓒ는 하부 전극이다. 3문단의 '센서에 전원이 ~ 전기장이 형성된다.'에서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도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이때 얇은 투습성 ~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에서 상부 전극을 통해 공기 중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된다.'에서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자 내부의 ~ 원자핵은 재배열된다'에서 전기장의 영향으로 분자 내부의 전자와 원자핵이 재배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판 내부에서는 ~ 양전하가 상쇄되고'에서 기판 내부에서는 상하부 전극 사이의 전기장에 의해 분자 내부에서 재배열된 전자와 원자핵이 띠는 음전하와 양전하가 분자 간의 경계에서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두 개의 전극은 ~ 고정되어 있다.'에서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은 도체임을, '상하부 전극 사이에 ~ 기판이 끼워져 있다'에서 수분 유지 기판은 부도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t_1은 센서에 전원이 공급된 시점, t_2는 센서 내부의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되기 시작한 시점, t_3는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로 인해 센서의 정전용량이 최대가 된 시점, t_4는 물 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에서 탈착되어 센서의 정전용량이 원래 크기를 회복한 시점이다. 3문단에서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의 상하부 표면의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가 분포'되면서 '부도체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어 분극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5문단의 '수분 유지 기판에서 ~ 원래 크기를 회복하면서'에서 t_4는 수분 유지 기판에서 물 분자가 탈착되고, 여전히 전원이 공급되면서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한 센서의 정전용량이 원래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이 사라졌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 수분 유지 기판에서는 이전보다 분극이 더 잘 일어난다'에서 물 분자가 흡착되면 유전율이 커진다는 것을, '이에 따라 ~ 증가하게 된다.'에서 유전율이 증가하면 정전용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t_1의 정전용량보다 t_3의 정전용량이 더 높으므로 수분 유지 기판에서 나타나는 유전율이 다르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자 내에서'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재배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t_1에서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는 분자의 원자핵과 전자가 분자 내에서 재배열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수분 유지 기판에 ~ 방향에 따라 분극된다.'를 보면,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되어 있는 t_2에서 t_4까지 물 분자 내부의 산소와 수소 원자가 분극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물 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되면'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도 많아'진다고 했으므로,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한 t_2와 t_3 구간에서 전하의 양이 증가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4문단의 '수분 유지 기판에 ~ 방향에 따라 분극된다.'에서 물 분자 내부의 산소 원자가 음전하를 띤다는 것을, 5문단의 '박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다'에서 박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박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에는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문단의 '물 분자는 수분 유지 기판에 증착된 박막 소재와의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탈착'되는 것에서 박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30 ~ 34] <출전> 김상용, 「물권법」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6문단에서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인 토지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6문단에서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고, '지상권과 지역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에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에 지상물이 현재는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지상물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는 지상권 설정을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1문단에서 '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인공 구조물, 수목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6문단에서 '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 소유권자 역시 해당 인공 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6문단에서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A 씨는 토지 X의 소유권자이자 2015년 10월 20일 이후 지상권설정자이며, 2014년 10월 20일 이후 토지 Y의 지역권자이다. 또한, B 씨는 토지 Y의 소유권자이자 2014년 10월 20일 이후 지역권설정자이며, 2015년 10월 20일 이후 토지 X의 지상권자이다. 마지막으로 C 씨는 2023년 10월 20일 이후 토지 X의 소유권자이자 지상권설정자이며, 토지 Y의 지역권자이다.

4문단에서 '토지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B 씨는 토지 X의 소유권이 C 씨로 이전되더라도 토지 X에 대한 지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지상권설정자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5년 10월 20일 이후, A 씨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② 6문단에서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고, A 씨는 2014년 10월 20일에 지역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6문단에서 '지역권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14년 10월 20일 토지 Y에 지역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될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하였고, 2023년 10월 20일 C 씨가 토지 X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5문단과 6문단을 통해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역지의 소유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승역지의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설정된 지역권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이용을 제한받으므로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기>에서 상린권이 경계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들이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에 토지의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례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 소유권자는 상린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쪽의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 이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한쪽의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의 '높이다'는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담을 높여'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를 길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직급을 과장으로 높여 주었다'는 '지위나 신분 따위를 더 위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타이어의 압력을 지나치게 높이면'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습도, 압력 따위를 더 높은 수준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보다 더 강하게 내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 고전수필]

[35 ~ 38] <출전> 조성신, 「개암정가」
김창협, 「청청각기」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시냇가에 누은 돌은 석국처럼 벌려 잇고'에서, (나)는 '그의 용모는 ~ 난초와 같으니'에서 각각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냇가에 놓여 있는 돌의 모습, 이군의 용모와 기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축수를 마친 후에 ~ 깨달으니 꿈이로다'에서 화자가 초선도로 가려고 하는 것일 뿐 초선도를 찾아간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청춘에 병이 ~ 개암정이 여기로다'에서 꿈속에서 개암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어주를 흘러 타고 ~ 뜰 앞에 벌려 있다'에서 개암정에 방문하여 주인 영감을 만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인사를 마친 후에 ~ 너를 위해 생겼던가'에서 개암정 주변 산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천지간 비밀스러운 ~ 송백은 푸르구나'에서 개암정에서 열린 가문의 모임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에서 '나'가 이군에 대해 '온화하고 담박하여 세속적인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변의 평판과 함께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산골 백성과 들녘 노인들'이 '경이로워'한다는 것과 '지나가는 나그네'도 '신선의 거처가 아닌가'하고 생각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청청각의 '아홉 칸' 구조와 '창', '출입문', '왕골 자리' 등 주변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이곳의 환경과 이군의 일이 모두 맑'다고 비교하며 '누각이 '청청각'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청'을 중복한 이유를 '스스로 재삼 다짐하는 깊은 뜻을 나타낸 것일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의 '거룩할사 ~ 많기도 많구나'에서 가문의 어른들이 '장수'하는 상황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암정은 가문 의식이 실현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하지만 (나)의 '환경을 따르면 ~ '청'의 지극함은 아니다'에서 내면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청각에서 '내면은 잊'고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기르는 '이군'의 모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돌 틈에 솟은 ~ 술잔이 띄워 있다'에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봉우리도 수려하고 ~ 절경이로구나'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이군이 '천천히 거닐면서 ~ 잡다한 일이 조금도 없다'에서 속세와 단절된 은일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의좋은 삼 형제는 ~ 벌려 있다'에서 삼 형제가 늙은 아버지와 노는 모습을 통해 유교적 가치인 '효'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의 '외물의 누를 ~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에서 자연의 맑음과 인간의 맑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9 ~ 42] <출전> 작자 미상, 「당태종전」

3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십전 명왕이 '지부의 토질이 달라서 ~ 보내 주시기 바라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태종에게 자신이 베푼 선의의 대가로 지부에 없는 '수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최 판관이 한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최 판관이 태종을 위기에서 구할 계략을 행하기 위해 '판관'이라는 직책의 권위를 이용하여 귀졸들에게 '너희들은 잠깐 멈추고 ~ 마음을 놓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이후 귀졸들이 '우리의 주장 판관이 ~ 행하지 않으리오?'하고 물러선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태종이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라'서 최 판관에게 '나갈 수 있는 계교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자 최 판관이 '신의 힘이 ~ 계교가 없'다며 '차탄하여 마지 아니'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염라대왕이 가져오라고 한 '생사부'의 내용을 보고 최 판관이 '책을 이대로 ~ 위징의 부탁을 저버릴 것' 같아 주저하다가 '열 십자 위에 두 획을 더' 긋는 계책을 떠올리고 행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최 판관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본 후 귀졸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들어오'는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태종에게 '인간 세상에 못 나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발화내용 이해하기

[A]는 창고지기가 태종에게 '천자의 부귀함으로도 남에게 준 것이 없기'에 저승의 창고에 '한낱의 곡식과 일푼의 금전이 없'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나에게 무엇을 ~ 어찌 이러하리오?'라며 태종을 힐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는 태종이 귀졸들에게 '세상으로 인도하여 가게 하'겠다는 말을 통해 귀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너희 혼령을 위로하고자 ~ 나누어 가지고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귀졸들을 설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은 '넓고 크나 ~ 텅 비어 있'고 '천자의 부귀함으로도 남에게 준 것이 없'어서 '한낱의 곡식과 일푼의 금전'도 없음을 보고 창피해하는 모습을 통해 태종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환기하는 장소임을, ㉡은 '평생에 적선하기를 일삼아 ~ 창고에 쌓고 노적하'고 있음을 통해 태종이 장상의 과거 행적의 결과를 확인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태종이 최 판관이 가리킨 집 안에서 발견한 '짚 한 뭇'은 태종이 이름이 알려지기 전 '손식'의 '처'가 해산할 때에 주었던 '태거적'의 결과물로, 이를 통해 태종이 끊어졌던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십전 명왕과 최 판관 모두 저승에 온 태종에게 '폐하'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태종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십전 명왕이 태종의 생사부를 보고 '10년을 지레 일찍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여 '바삐 도로 인세에 나가심을 청하라'고 한 말을 보아, 저승이 환생에 관여하는 사후 세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귀졸들이 전장에서 태종으로 인해 '무죄하게 죽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었다가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어 태종이 '정신을 잃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태종이 자신의 업보로 인해 저승에서 위기를 겪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태종이 최 판관과 함께 '장상의 창고'에 가서 '금을 꾸'어 귀졸들에게 나누어주며 '너희 혼령을 위로하고자 ~ 나누어 가지고 물러나라'고 말하며 귀졸들을 물러서게 하는 것으로 보아,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장상의 업보를 통해 태종이 저승에서의 위기를 모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43 ~ 45] <출전> 김광균, 「목련나무 옆에서」
정일근,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의 첫행과 마지막행이 '그리운 곳에는 ~ 소리가 있네'로 동일하여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가)는 수미상관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은 '어떤 일이 거듭하여'의 의미를 지닌 시어로 (나)의 11행과 12행의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 또 그렇게 가다보면 세상의 마지막 저녁과'에서 ㉤이 수식하는 것은 '그렇게 가다보면'이므로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는 행동의 반복을 나타낼 뿐 '세상의 마지막 저녁'을 거듭해서 겪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가지들 낱낱이 모두 그러함의 의미를 지닌 시어로 (가)의 1연에서 ㉠은 목련이 가지들 낱낱이 피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아침이란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어로 (가)의 2연에서 화자가 인식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점이 아침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다 끝나거나 지나버린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시어로 (나)의 4행의 '천상의 사랑은 ~ 달아나버려'에서 달아나 버린 행동이 지나 버린 일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들판이라는 처소를 뜻하는 시어로 (나)의 6행과 7행의 '어제는 들판에서 잠자고 오늘은 길 위에서 눈뜨는 노숙의 세월'에서 들판이라는 처소를 제시하여 노숙의 세월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의 3연에서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떠나가시고'에서 화자가 목련과 어머님을 동일시하는 모습이,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에서 자신과 나무를 동일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화자가 자신과 어머님을 동일시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연에서 '목련이 가지마다 꽃등을 달면 병석의 어머님은 방문을 열고 사월 팔일이 온 것 같다고 웃고 계셨다.'에서 화자가 어머님의 옛모습을 회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9행에서 '나는 ~ 외로운 쌍봉낙타'라고 하여 화자가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3행에서 '상처뿐인 삶들도 돌아가 잠들 그리운 집은 있'다고 하고 13행에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하면 17 ~ 19행에 '세상의 첫소리와 첫사랑 현옹수 떨리는 소리까지 들'린다며 그리운 곳이 고향임을 드러내고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게'라고 하여 화자의 고향에 대한 지향과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1연에서 '사월이 돌아와 다사로운 봄볕에 목련이 꽃망울지기 시작하면'이라고 했고 3연에서 '삼백 예순 날이 또 지나가겠지'라고 하여 계절의 반복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고 (나)의 10 ~ 11행에서 '취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도시의 불사막을 지글거리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 것에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인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